

# 지난해 쌀 소비 1970년 비 절반...잡곡은 꾸준히 증가

### 1인당 쌀 136.4kg→61.8kg...잡곡 9.1kg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잡곡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1964년 쌀 소비량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소비량이 높았던 1970년 136.4kg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연도별 1인당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11년 71.2kg 보다 10kg 가까이 줄었다.

반면 잡곡(기타양곡)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인당 잡곡 소비량은 7.4kg이었으나 지난 해 9.1kg으로 7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쌀과 잡곡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양곡 소비량 중 잡곡은 9.4%를 차지했지만, 지난 해 12.8%로 늘었다. 롯데마트에서도

2015년 전체 양곡 매출에서 26.6%를 차지하고 있던 잡곡 매출 비중은 지난 해 28.5%, 올해 4월 31.1%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롯데마트는 잡곡류 진상품에 대한 리뉴얼을 단행했다. 백미(白米)보다 거친 식감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해 용량과 포장 방식 등을 개선한 다양한 '기능성 잡곡'을 선보였다.

'기능성 잡곡'으로는 효소 발효 처리를 통해 불림 없이도 백미와 같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발효 찰쌀(2kg/9800원), 발효 찰현미(2kg/9800원), 발효 현미(2kg/8800원)와 유산균을 통해 발효 처리한 발효 귀리(1.8kg/4980원), 장수밤상 혼합9곡(2kg/9800원) 등이다.

김기연 롯데마트 건식품팀 MIX상품기획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잡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며 "이런 고객 수요를 고려해 올해 초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고, 소포장의 밀폐 파우치 형태로 전 상품을 리뉴얼하며 잡곡 매출이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간편 인증·이체서비스 오픈

### 계좌 조회·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 가능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간편 비밀번호 인증 패턴인증, 간편 이체 서비스를 오는 8일에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간편 비밀번호인증은 스마트뱅킹 이용시 기존 공인인증서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숫자 6자리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계좌조회와 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시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가 스마트폰 별도의 보안영역에 저장돼 기존의 보안장치보다 안전하게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또 자신만의 패턴을 그려 로그인 가능하도록 패턴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지문인식과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방식과 더불어 간편 비밀번호 인증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간편 이체는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입력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를 알지 못하는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도 가능하다.

송금인이 스마트뱅킹에서 이체 금액을 입력 후 카카오톡 친구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의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정보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면, 수취인이 확인 후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자료주소(URL)에 접속해 수취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광주은행 디지털사업부 전철민 팀장은 "이번에 오픈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한층 더 쉽고 빠른 스마트뱅킹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워지는 날씨, 여름 가전 미리 준비하세요" 8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삼성/LG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 가전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더워지는 날씨에 얼리버드 계절 가전 행사를 선보인다.

## 지난달 수입차 2만5923대 신규 등록

### 판매재개 아우디 3위...메르세데스-벤츠 7349대로 1위 수성

### Audi Volkswagen Korea



4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 592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3% 증가한 수치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4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 2만5923대는 3월(2만6402대)에 비해 1.8% 감소했지만 전년동월(2만511대)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1~4월 누적 등록대수는 9만 3328대로 이 역시 전년 동기(7만 5017대)에 비해 24.4% 증가했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 A6 35 TDI(1405대), BMW 520d(1357대), 메르세데스-벤츠 E 200(1257대)였다.

지난달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7349대)였고, ▲BMW(6573대)가 뒤를 따랐다. 디젤게이트 이후 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복귀한 ▲아우디(2165대) 역시 판매 재개 직후 3위 자리를 꿰찼다.

뒤를 이어 ▲토요타(1709대)▲포드(1054대)▲랜드로버(911대)▲렉서스(872대)▲볼보(863대)▲폭스바겐(809대)▲마지(749대)▲크라이슬러(486대)▲닛산(449대)▲현대(426대)▲푸조(385대) 순이었다.

또 ▲포르쉐(275대)▲재규어(249대)▲인피니티(208대)▲캐딜락(142대)▲미세라티(125대)▲시트로엥(80대)▲벤츨리(31대)▲롤스로이스(13대) 순이었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 1만 7223대(66.4%)▲2000cc~3000cc 미만 7332대(28.3%)▲3000cc~4000cc 미만 1116대(4.3%)▲4000cc 이상 202대(0.8%)▲기타(전기차) 50대(0.2%)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차량이 2만577대(79.4%) 등록, 가장 큰 인기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일본 3,664대(14.1%)▲미국 1682대(6.5%)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 1만2955대(50.0%)▲가솔린 1만758대(41.5%)▲하이브리드 2160대(8.3%)▲전기 50대(0.2%) 순이었다.

구매 유형별로는 2만5923대 중 개인구매가 1만7997대로 69.4%를 차지했다. 법인구매는 7926대로 30.6%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30.0%), 서울(23.3%), 부산(6.6%) 순이었다. 법인구매의 경우 인천(32.0%), 부산(24.4%), 대구(13.8%)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4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가 있었으나 브랜드별 몰락부족과 신차대기 수요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 "과중한 황혼육아, 실버세대 운동시간 태부족"

실버 세대가 과도한 '황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운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일유업 사코페니아 연구소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20~40대 자녀 2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는 '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육아 도움을 받는 아들 가운데 67%는 '부모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육아를 도와준다'고 답했다.

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 중 응답자 33%가 하루 4~8시간 도와준다고 했다. 8시간 이상 도와준다는 응답도 32%에 달했다. 육아 도움을 받는 부모님은 친정 어머니가 77%로 가장 많았다. 시어머니가 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모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한다고 답한 경우는 34%에 그쳤다. 일주일에 1~2일이라는 응답은 30%, 1주일에 1일 미만도 21%로 나타났다.

사코페니아는 팔과 다리 등 골격근이 정상보다 많이 줄어들어 근감소증이다. 근육이란 뜻의 사코(sarco)와 부족 및 감소를 의미하는 페니아(pernia)의 합성어다. 매일유업은 실버세대 영양 산업 선도를 위해 지난 2월 사코페니아 연구소를 설립했다.

김용기 매일유업 사코페니아 연구소장은 "활력 넘치는 노년기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사코페니아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D와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